

한국 무속신화에 보이는 ‘공간과 장소’에 대한 고찰 A study of ‘space & place’ in Korea Shamanism Myth

장재진*

동명대학교*

Jang, Jae Jin*

TongMyong Univ.*

요약

본 연구는 한국의 신화 가운데 공간의 분리와 장소적 특성을 보이는 무속신화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통해서 무속신화의 원형을 토대로 한 스토리텔링의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보임으로써 문화산업시대와 한류라는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I.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한국 무속신화를 통해 문화 콘텐츠의 활용방안을 위한 다양한 문화원형을 확보할 수 있다. 문화의 원형은 스토리텔링을 통해 문화콘텐츠를 만들어냄으로써 대중에게 문화를 향유하게 하는 토대를 마련해 주는 역할을 한다. 무속신화는 공간, 장소, 시간을 통해 이야기가 전개된다. 대부분의 신화는 신들의 이야기이지만 결국은 인간들의 이야기와 연계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관계는 공간, 장소, 시간이라는 틀 속에서 전개된다.

신화속의 공간은 우주공간, 신들이 주거하는 공간, 그 사회의 공간 등으로 표현된다. 이러한 공간에서 사건이 발생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전개되면서 공간은 장소의 특성을 갖게 된다.

본자는 본고를 통해서 문화의 원형에 해당하는 원소를 한국의 신화 가운데 무속에서 찾아보고, 이 중에서 공간과 장소성에 표출된 내용을 통해서 문화콘텐츠의 가능성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선행연구

한국의 무속신화에 대한 공간, 장소, 시간에 대한 연구는 강진욱의 “신성과의 소통방식을 통해본 무속의례와 신화의 공간성 연구”(이화여자 대학교, 2008)가 있다. 이는 무속신화에 나타나는 공간적 성격을 ‘신성과의 소통’이란 현상을 중심으로 한국무속의례와 신화의 공간성이 갖는 의미를 문화론적 관점에서 고찰한 것이다. 양성필의 “무속신화의 구조적 고찰을 통한 한국전통주거건축 공간조직의 이해에 관한 연구”(중앙대학교 석사논문, 1996)은 신화의 표현에 있어서 상징성과 실재성을 이해하고 공간과 인간과 신의 상징적인 관련성을 주거공간이라고 하는 실재적인 삶의 토대와 연관시켜 연구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의 대상이 된 무속신화는 ‘성주신화’로써 주거공간의 세계적인 위치와 성과 속의 구조적인 고찰을

한 것이다.

나하영의 “가택신앙을 통한 한국전통주거공간의 의미 고찰”(전남대학교 석사논문, 2002)은 현상학적 특성만을 통해 주거공간을 이해하는 기존이 성향과 달리 가택신앙의 가선의 성격과 기능을 통해 공간의 의미를 이해하고자 한 연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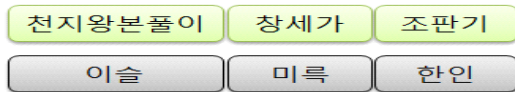
II. 공간의 분리와 장소적 특성

천지왕, 소별왕과 대별왕, 강림도령, 바리공주, 장길손 등은 한국의 신화 가운데 무속신화와의 연관성이 있는 이야기들이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구비 전승되어 오다가 기록된 것으로 한국 무속신화의 원형을 제시해주는 이야기들이다.

신화에는 우주와 자연의 기원과 질서에 대한 것, 인류의 탄생과 문화현상의 기원과 질서에 관한 것 등이 있으며, 초자연적이고 이에 인격이 부여된 이야기들이 등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신화들은 종교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문화를 소비하는 대중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가공되는 작업인 문화콘텐츠는 스토리텔링을 전제로 한다. 무속에서 문화의 원형을 찾고 스토리텔링을 통한 문화콘텐츠의 생산은 문화를 활용한 문화산업의 기반이 된다. 무속신화에 나타난 공간과 장소에 대한 특성은 한국인의 전통예술 및 문화의 원형을 형성하는 데 많은 영향을 주었다.

1. 공간의 분리

‘천지왕본풀이’, ‘창세가’, ‘조판기’에서는 태고의 우주공간은 하늘과 땅이 맞붙어 있었으며 특정한 사건을 계기로 하늘과 땅이 분리된다. ‘천지왕본풀이’에서는 ‘개벽’을 통해서 ‘창세가’는 ‘미륵님’을 통해서 그리고 ‘조판기’에서는 ‘환인’을 통해서 공간의 분리가 이루어진다. 사람에게 의미 있는 공간은 자연에 의해 ‘주어진 공간’, ‘초현실의 공간’, ‘가상공간’[1]이 아니라 이러한 공간이 현실 속에 적용되어 삶을 운택하게 할 수 있는 공간일 때 의미가 있다.



▶▶ 그림 1. 무속신화와 공간분리의 매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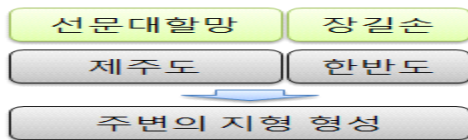


▶▶ 그림 2. 공간의 분리

이와 같은 창조신화적인 내용은 북유럽의 신화, 바벨로니아의 신화, 이스라엘의 신화, 중국의 신화 등에서도 세상이 카오스로부터 생겨났다고 말하고 있는 것과 유사하다. 이와 같은 신화의 보편성을 통해 우리의 신화를 재구성하고 잘 다듬으면 세계적인 문화상품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2. 공간의 장소적 특성

‘선문대 할망’이나 ‘장길손’의 신화에서는 태고의 공간 분리리든가 우주의 창조에 관한 이야기 보다 특정 지역의 형성과정과 관련한 내용이 언급되고 있으며 이는 지역적 특성을 표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 그림 3. 공간의 장소적 특성과 지형

공간과 장소에 드러난 신화의 이야기는 신화적 세계관의 축을 형성하면서 질서를 부여하고 있다. 새롭게 형성되는 주변의 지형은 공간의 분할을 의미하며 이를 통한 사건들의 전개는 지역의 문화적인 현상을 표출한다.

3. 장소의 사회적 특성

사건의 발생이 없는 단순한 공간에 가치가 부여되고 의미가 생성됨에 따라서 공간은 장소가 된다. 그러므로 “장소는 인간 실존이 외부와 맺는 유대를 드러내는 동시에 인간의 자유와 실재성의 깊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인간을 위치시킨다.”^[2]

‘군웅본풀이’의 장소는 산과 바다를 통해서 표출된다. 산이라는 장소는 왕 장군에게 삶의 터전이었다. 왕 장군이 서해용왕과 남해용왕의 싸움에 관여함으로써 바다라는 장소와의 관련을 갖게 된다. 이러한 신화에 내재된 군웅의 사회적 의미는 마을이나 국가의 안녕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며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

‘성조본풀이’에서 성조(동래본)에서 보이는 장소는 하늘세계인 천공과 지상세계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일이

다. 지상세계의 여인은 계화라는 공주이며 여기서 5년 5년의 자식을 두게 된다. 이후 성조는 인간에게 가옥제조법을 만들어 주고 스스로 성조신(成造神)이 되었다. 그리고 부인도 성조신이 되었으며 아들 다섯은 오토지신(五土地神), 딸 다섯은 오방부인(五方夫人)이 되었다. ‘성주(제주도본)’와 ‘황우양(성주본가)’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늘이라는 장소와 지상이라는 장소, 그리고 이 두 장소의 특성을 지닌 존재의 결합에 의해 탄생한 제 3의 인물을 통해서 사건이 진행된다.



▶▶ 그림 4. 장소의 사회적 의미

이 세 가지는 같은 ‘성주본풀이’이지만 구성이 각기 달라서 스토리텔링의 모델이 된다. 성주신(城主神)은 안녕과 부귀를 관장하는 가택의 신이므로 삶의 장소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와 같이 우리가 특정한 장소로 인식하고 이에 부합하는 신(神)에 대한 의미는 생활세계를 특징짓고 다른 생활의 문화와 구별 짓는다. 특정한 장소와 이를 통해 표출되는 신화의 의도와 목적은 “모든 것의 초점이 되는 장소의 특성 때문에, 장소는 주위 공간의 일부이면서도 그 공간과는 별개이다. 그러므로 장소는 세계경험에 질서를 부여하는 기본적인 요소가 된다.”^[3]

Ⅲ. 결론

본 연구는 ‘천지왕본풀이’, ‘창세가’, ‘조판기’를 통해서 공간의 분리와 존재성을 ‘선문대 할망’이나 ‘장길손’의 신화를 통해서 공간의 장소적 특성에 대해 고찰하였다. 또한 ‘군웅본풀이’와 ‘성조본풀이’에 대해서는 장소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역사적 배경과 사회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서 한국 신화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무속신화에서 공간에 대한 질서부여를 통한 장소의 특성화, 그리고 장소의 사회적 의미부여를 가능하게 하는 문화 원형에 대해 알 수 있었다. 스토리텔링을 통한 문화콘텐츠 상품화를 위한 가능성을 공간과 장소라는 특성을 통해 개발할 수 있다고 본다.

■ 참고 문헌 ■

- [1] 조명래, 공간으로 사회읽기, 한울, pp.24, 2013.
- [2] 이푸 투안, 공간과 장소, 구동회/심승희 옮김, 도서출판 대운, pp.16, 2011.
- [3] 에드워드 렐프, 장소와 장소상실, 김덕현 외, 논형, pp.104, 2005.